

시론



박노식 시인·시엔영 원장

밥맛을 잃었다거나 입맛이 떨어졌다는 푸념을 자주 듣는 성하(盛夏)의 계절이지만 시골은 조금 다르다. 폭염의 시간대만 잠시 일손을 피할 뿐, 이른 아침과 해 저문 저녁엔 여전히 일손을 놓지 않으므로 식욕이 달아날 리 없다.

혹여 더위에 지친 몸이 식욕을 찾아가더라도 잠깐 뒷밭을 다녀오면 만사 해결이다. 싱싱한 야채를 뜯어 무침을 하고 찜을 싸고 된장국을 끓이면 그만이다.

상추, 오이, 가지, 호박, 호박잎, 부추, 고구마 순, 그리고 뭐니 뭐니해도 여름 입맛을 되살려주는 건 찬물에 식은밥을 말아서 된장에 흥고추를 찍어먹는 맛이다.

여름은 고통스럽지만, 식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므로 너무 탓할 일도 아니다.

요즘, 세간에는 채송화의 꽃잎만큼 작으나마 호뭇한 미소가 번지는 듯하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 뭐랄까 소속감이나 존재감을 재확인시켜주는 사건?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약간의 동료 의식을 갖는 듯도 하다. 이게 바로 전 국민에게 지

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이다.

상가마다 복적거리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마침 휴가철을 맞아 두둑한 장바구니를 들고 피서지로 향하는 걸음들이 활기차기만 하다.

그러나 소비 쿠폰을 사용할 때마다 개운한 맛이 안 난다. 이 쿠폰 한 장에 들어간 금액은 공평하지만, 이 쿠폰을 제작하는 데에 들어간 금액을 생각하면 영 기분이 나빠진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쿠폰 한 장을 만들기까지 광주시는 여러 번의 세금을 낭비한 끝에 겨우 동일한 색의 쿠폰을 지급했다. 기관의 수장은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광주시의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이와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러므로 수장은 수장으로서의 권위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늘 행정을 펼쳐야 한다. 더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는 속담을 시장은 새겨들어야 한다.

무더위에 심신이 지쳐가는 것도 괴로운데, 하물며 언론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는 한 인물을 바라보는 것은 더욱 입맛을 쓰게 만드나. 과연 그가 인재를 추천하고 관리할만한 인물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불쾌하기만 하다.

그는 아무래도 자기 현시욕이 너무 강해서

'제 눈에 들보'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직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거나 적절한 인물도 아닌 듯하다.

어찌 됐든, 그의 언행에는 독서의 품격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아마도 독서를 몹시 싫어해서 책을 마치 벌레 보듯 멀리한 건 아닌지, 그래서 그만큼 불안스러운 존재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일곱 번째 별인 지구에서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동안 겨우 꽃 한 송이를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며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

어린 왕자가 공손하게 물었다.

꽃은 옛날에 몇 명의 상인들이 무리 지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이라는 거 말야? 글썄, 한 예닐곱 명쯤 있는 것 같아. 몇 해 전에 그들을 본 적이 있어. 하지만 어디로 가면 다시 찾을 수 있는지는 몰라. 그들은 바람에 실려 다니거든.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그래서 아마 곤란을 많이 겪을 거야."

근본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곤란을 많이 겪을 것'이라는 이 말은 공직자에게 의미심장하다.

앉았다 떠난 자리에 악취가 진동할지, 고운 향이 피어날지는 그 사람의 고개를 통해 알 수 있다.

떠난 자리

社說

폭염 뒤 폭우 반복 극한날씨 대응 시스템 점검 필요

지난달 중순 역대급 폭우로 인한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 광주·전남에 또 다시 낙뢰를 동반한 엄청난 비가 내렸다. 1시간 최대 강수량인 142㎜를 기록한 무안군을 포함해 주택과 도로, 농작물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주요 하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산간지역은 산사태 우려가 컸다. 주민들은 긴급히 피하며 불안감으로 일요일 밤을 지새웠다.

200년 빈도의 공포스런 강우였다. 소멸하지 않고 저기압의 형태로 서해상으로 접근한 제8호 태풍 꼬마이에서 비롯된 '나비효과'로 좁고 긴 띠가 형성돼 많은 비를 쏟았다. 앞서 보름 전 물폭탄 역시 높은 기온에 따른 다량의 수증기 유입이 영향을 미쳤다. 흡사 아열대 처럼 극한 폭염에 이은 폭우, 폭염, 그리고 폭우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올 여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극단적인 기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예측 실패에 따른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광주시 복구 신안동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행정당국이 키웠다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은 단적인 사례다. 이들은 서방천 일부 구간에 설치된 투명 홍수 방어벽과 신안교의 밀폐형 차단막을

지목하고 광주시와 복구에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또 한번 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시간당 강수량은 50㎜ 내외로 예측된다. 구름대가 정체할 경우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비가 오락가락하겠으며 최고기온도 33도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습한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온열질환 예방 등 개인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농작물 시설물 관리 역시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전력량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정전 위험에도 잘 준비해야 한다.

날씨가 '괴물'이 됐다. 충분히 대비하는 도리밖에 없다. 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하에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삼습 침수, 저지대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강화와 대피 및 복구체계 구축 등 재난 매뉴얼의 전면적 정비도 시급하다. 국지적으로 집중되고 편차가 크다. 시민들도 기상정보를 수시 확인하고 안내에 협조해야 한다.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북극항로’ 성공적 개척 여수·광양항의 역할도 막중

여수·광양항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컨테이너를 제외한 화물과 인프라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부산항과 협력·상생의 파트너로서 함께 육성해야 한다. 전남도는 특히 에너지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북극 자원의 기점이자 종전, 환적항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극항로는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열리는 바닷길을 일컫는다.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다. 글로벌 물류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 미래형 복합항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2대 항만인 여수·광양항을 남해안의 핵심으로 활용해야 한다. 거대한 기회이자 도전이다. 전남도는 전남조직 설립, 북극항로 연계 지원·발전 계획, 연관 산업 확대 등 구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김영록 지사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북극항로의 성공적 개척을 위한 국가 지원을 집중 건의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권한영·문금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남도·여수시·광양시·여수광양항만공사가 주관한 세미

나에서는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이유로 수소·철강·암모니아 등 에너지·자원 가공·저장·재분배 복합에너지 중심 발전 가능성, 배후 스마트 물류 체계와 철도·산단 기반시설 연계 해운·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 부산항과 역할을 분담하는 남해안 북수 핵심축 기능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취임 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지역 출신 전재수 장관 임명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수·광양항 역시 충분한 잠재력을 갖췄다. 천문학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전남도는 정부에 북극항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전력해야 한다.

북극항로는 초일류 해양 강국의 꿈이다. 여수·광양항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원유, 석유화학, 철광석 등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에 특화된 항만이다. 북극항로를 운영하는 선박 또한 비컨테이너에서 북극항로의 성공적 개척을 위한 국가 지원을 집중 건의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권한영·문금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남도·여수시·광양시·여수광양항만공사가 주관한 세미

기고



최일 전남도 총괄건축가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면한 현실이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의 변화는 지역 공간 전략의 에너지 새로운 전환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자원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역 균형 발전의 과제까지 더해지며 이제의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해석과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RE100 산업단지는 이러한 변화를 제도·공간적으로 수용하고 실현하려는 중요한 정책 실험이자, 향후 국가 전반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상징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풍부한 햇빛과 바람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전남은 이미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산업 생태계도 점차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러한 자원과 기반

미래 에너지 신도시를 향한 건축의 역할

위에 RE100 산업단지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과 산업 역량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라는 장기적 도시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벨트는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과 공간 혁신, 정주환경 개선, 산업 유지,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선순환의 도시모델을 구현하겠다는 전남도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비전이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건축·도시계획, 에너지 정책, 산업 구조, 정주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하며 각 요소가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조율돼야 합니다.

특히 RE100 산업단지처럼 사람과 산업, 환경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공간에서는 기술 중심의 접근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그 공간에 살아갈 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문화적 정체성까지 고려하는 총체적인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이상적인 구상이 실제 공간과 시스템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 수립과 현장 중심의 실질적 실행력,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협업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참여가 형식적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사업 실행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협업 구조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간은 시대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RE100 산업단지가 만들어갈 공간 역시 단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산업단지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그곳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넘어 지역의 삶과 문화,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삶의 플랫폼이 돼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기술적 과제가 도시형성, 공동체 회복, 삶의 질 향상, 문화경관 형성과 맞물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미래 도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도 총괄건축가로서 이러한 통합적 시각과 다학제적 관점이 정책과 설계,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단지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공간의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이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기술과 문화가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RE100 산업단지는 건축가에게도 큰 도전이자 기회이며 더 나은 사회로의 전환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실천의 장입니다.

이 새로운 미래의 설계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책임이자 영광입니다. 앞으로 전남도의 공간환경이 보다 품격 있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독자투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공격성이 강한 말벌에 의한 벌쏘임 출동과 벌집 제거 출동이 많아졌다. 또한 바다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해파리 쏘임사고도 주의 및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벌 쏘임 사고는 80% 가까이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이나 들에 벌이 있을 법한 장소에서는 흰색 등 밝은 계열의 옷을 입고 췌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게 좋다. 특히 등산이나 제초 작업 등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의 활동 시에는 소매가 긴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벌에 쏘이게 된다면 벌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신용카드 등 납작한

지금은 ‘벌·해파리 쏘임’주의보 발령 중

물건의 모서리로 긁어내듯 벌침을 제거한 뒤 소독한다. 이후 얼음찜질로 통증을 완화해준다.

바닷가에 출몰해 피서객을 위협하는 해파리도 쏘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존재다.

해파리 쏘임사고를 방지하려면 바다에 입수할 때 최대한 피부 노출이 적은 수영복을 착용하고 부유물이 많은 곳은 피한다.

만약 해파리 쏘임 사고를 당했다면 해파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물 밖으로 나와 쏘인 부위를 해수로 씻는다. 피부에 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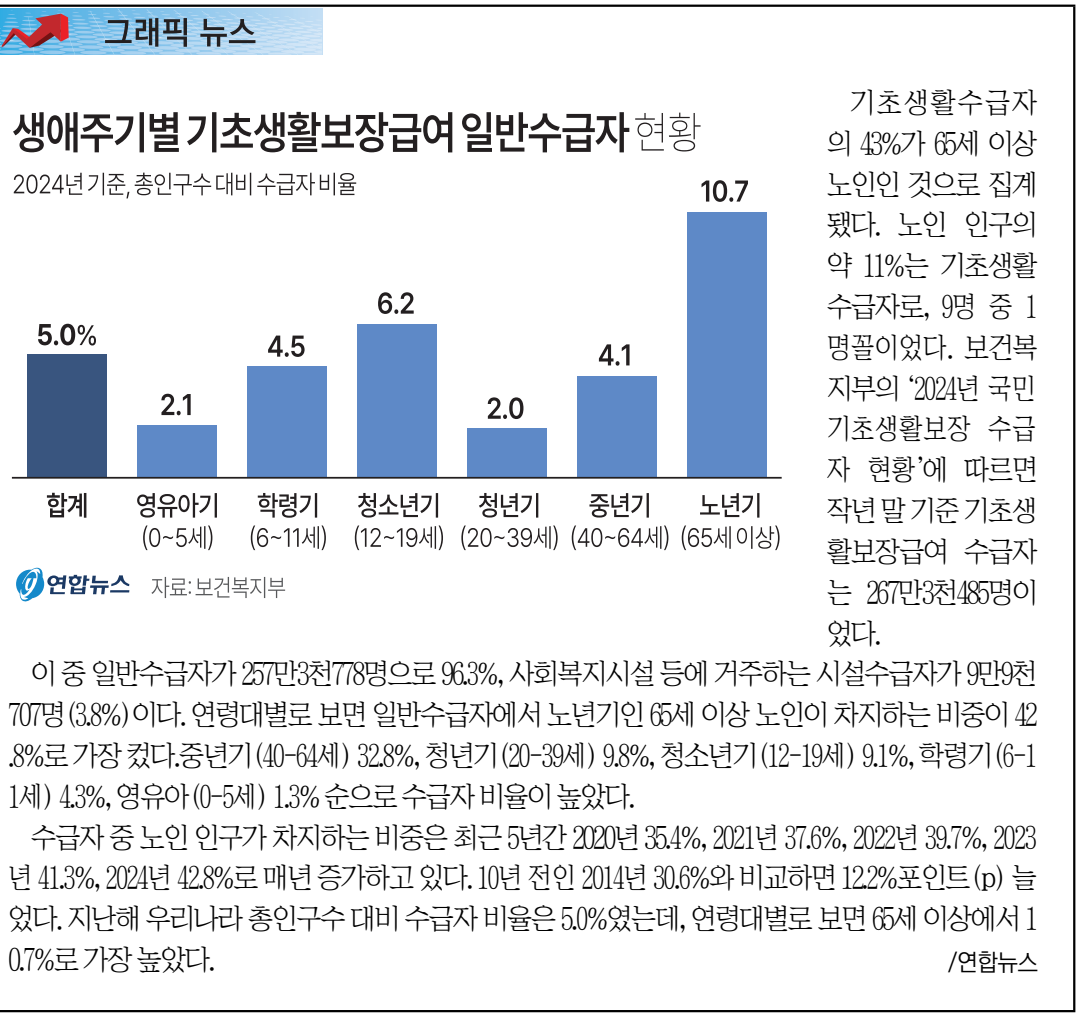
있는 촉수는 맨손으로 만지면 일부 사람들에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핀셋이나 장갑을 사용해 제거한다. 통증이 남을 경우 45℃ 정도의 미온수로 온찜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

벌이나 해파리 쏘임으로 심한 통증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이 지속된다면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불발터위에 시골 부모님 집을 찾아뵙고 폭염 대처 요령도 설명해 드리며 부모님이 일하시는 논·밭 주변 벌집이 있는지 살피는 것도 효의 실천이 아닐까 싶다.

〈한선근·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국 사업본부 업무국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신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